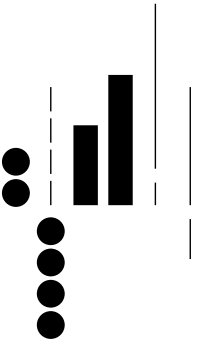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집합도시
COLLECTIVE CITY

비엔날레 소개

주제
집합도시

총감독
임재용, 프란시스코 사닌

기간
2019.9.7 – 11.10

주 전시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기타 전시장
세운상가, 대림상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시건축센터

주최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서울비엔날레)는 건축과 도시를 매개로 하여 세계 도시의 현안과 미래상에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참여하는 국제 행사이다. 서울비엔날레는 사회학, 지리학, 경제학, 등의 학문에 더불어 문학, 공연, 영화 등 예술 전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름으로써 현대의 도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대중, 전문가, 예술가와 건축가, 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업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자인과 정책적인 대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2019 서울비엔날레의 목표는 시민들이 세계 도시의 창조와 변화 과정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이들 시민이 각 도시의 사회화 및 도시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집합유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로써 서울비엔날레는 전 세계 도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도시 건축 분야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BIENNALE INTRODUCTION

Theme
Collective City

Co-directors
Jaeyong Lim, Francisco Sanin

Period
September 7 – November 10, 2019

Main Venu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Sub Venue
Sewoon Sangga, Daelim Sangga, Seoul Museum of History, Seoul Center for Architecture and Urbanism

Organiz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Design Foundation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INTRODUCTION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oul Biennale) incorporates a wide range of fields-from sociology, geography and economics to literature, art, theater, and film – to engage in research and debate around the future of cities around the world. Seeking innovative design and policy alternatives, the Seoul Biennale actively collaborates with the public, experts, artists, architects, and policy makers.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2019

The 2019 aims to create a space for communication and engagement of citizens in the cre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ir ciies, and to develop new collective strategies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urban and social processes of the city. The biennale will become a global platform for th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debate of the multiple challenges and responses facing cities at a global scale.

총감독

임재용은 건축가이자 현 서울문화재단 이사이다. Seoul, Towards a Meta-City 전시의 커미셔너로 지냈고, 2011-2012 한일 현대건축 교류전의 총감독이었다. 또한, 2011 UIA대회 서울 홍보관 커미셔너이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프란시스코 사닌은 시라큐스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오레곤 대학교, 킹스톤 대학교 건축학과 객원교수로 지내기도 했다. 2008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공동 커미셔너를 시작으로, 2011 제4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디자이너로 참여하였고,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는 세계총괄건축가포럼의 큐레이터로 활동하였다. 메데인 폰티피시아 볼리바리아나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CO-DIRECTORS

Jaeyong Lim is an architect and a current member of the board of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He was the commissioner for the exhibition ‘Seoul, Towards a Meta-City’, and was the director of the 2011-2012 Korea-Japan Contemporary Architecture exhibition. Furthermore, he was the commissioner of the 2011 UIA competition for the Seoul Promotional Center. Lim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ster’s Degree at University of Michigan.

Francisco Sanin is the professor of Architecture at Syracuse University. He was a visiting professor at Princeton University, University of Oregon, and Kingston University. He was co-commissioner of the Korean Pavilion for the 2008 Venice Biennale, and the designer of the 4th Gwangju Biennale 2011, and the curator for the Seoul City Architects Forum 2017. Sanin is a registered architect, he received his diploma degree from the Universidad Pontificia Bolvariana in Medellin, Colombia.

집합도시: 도시와 건축을 재탄생시키다

예나 지금이나 도시는 경합의 장이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절충의 공간이자, 다양하고 복잡한 주제와 상황으로 이루어진 곳이다. 도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갈등과 절충의 공간이 가진 복잡하고 모순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구성하는 분분한 권리와 가치를 인지하고, 도시 내 상충하는 주거권, 천연·사회자원, 교통, 물, 정치적 자유, 인종과 젠더 권리, 국내 실향민 및 세계 난민 위기 등에 대한 권리를 물리·정치적 구조로 인식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도시는 생산적인 구조이자 부와 권력을 집결하는 수단으로 변모하고 있다. 상업·기술적 비전을 갖는 새로운 도시 모델은 도시의 집합성에 도전장을 내밀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환경적 생존에도 염려가 되고 있다. 도시 홍보에서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또 자유무역지역에서 지정학적 고립지역까지, 도시의 다양한 사건들의 특성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효율성과 이윤의 논리로 형성되고, 공공 자원과 공간은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서 도시를 여전히 집합적 공간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늘날 도시를 집합적 주체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그 집합을 정치적 활동의 주체(즉, 사회 및 환경 공동체의 주체)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지식과 사회적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과 도시는 어떠한 학문·문화적 변혁을 추구해야 하는가? 또한 우리가 기획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성과 협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아가 이론과 실행에 있어 건축 및 도시 디자인이 갖는 잠재적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에 행동력과 연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건축과 도시 간에 점진적인 분열이 생겨났다.그 과정에서 도시와 도시 영토를 구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등장했다. 도시의 형태와 구성 과정에서 건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고, 그에 따라 건축의 주요한 학문적 영역이 외면 받게 되었다. 전례 없는 성장과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 체제의 시대를 맞아 오늘날 도시에 대한 인식은 점차 흐름(flows)과 데이터 시스템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도시 성공의 척도가 이윤,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처럼 건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거나 심지어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위험에 놓여 있는 듯 하지만 기후변화, 부동산 시장 위기, 사회적 불평등, 소외 등의 현상과 더불어 이 과정에서 공간, 영토, 지리적 체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제고로 건축과 도시 디자인이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잠재력을 갖는다는 사실이 주목 되었다.

오늘날 건축이 직면한 과제는 도시 프로젝트와 관련한 본래의 역할을 되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공공 공간에서 사회기반 네트워크, 행동주의에서 제도적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새로운 도구와 방법 및 개입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건축을 '객체(object)와 아이콘(icon)'의 차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넘어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축은 학문적 영역을 확장하여 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COLLECTIVE CITY: RECLAIMING THE CITY AND ARCHITECTURE

Cities are contested territories, by their very nature spaces of negotiation, multiple and complex subjects, divergent rights, values, claims and conditions. To understand the city one needs to understand this contradictory nature and to recognise and frame it as a physical and political construct complicit in the right to housing, access to natural and social resources, transportation, political freedoms and justice whilstvsimultaneously pressured by the challenges of internal and global migration, climate change and increasing inequity.

The contemporary city operates as a speculative apparatus, a mechanism of capital, shaped by the logic of efficiency and profit; public resources and spaces are increasingly privatised and conceived of as commodities. Emerging systems are based on a managerial model that privileges corporate and technocratic visions that undermine the collective nature of the city, and challenge both our political and environmental survival. From corporate cities, free-trade zones to geopolitical enclaves, the city is in a deep crisis as to the very nature of its project.

In the wake of global urbanisation and the distorted growth of urban centres – cities – architecture has become progressively marginalised from the city's form and processes, increasingly relinquishing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its disciplinary scope. In the context of this continued and unprecedented growth and progressively complex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 contemporary city is overwhelmingly conceived in terms of flows and data systems with success measured by statistics and metrics.

The urgent challenge is to develop new tools, methods and forms of intervention at multiple scales from the domestic to the territorial scale, from public space to infrastructural networks, from activism to institutional roles, redefining architecture's disciplinary territories as a system of knowledge production. The Seoul Architecture and Urbanism Biennale (SBAU) 2019 claims architecture 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and as an agent in realising a political and cultural project for the city, reimagining and reconsidering it beyond the object-icon dimension in which is trapped today

The SBAU has the privilege to rethink, reimagine and claim back the city as a collective project and to truly interrogate its viability and its construct. These questions could not be more immediate, timely or urgent. The global population tips the balance at 8 billion with more than 70% of people soon to be living in our cities, the transformation and sublimation of our urban centres transgresses comprehensible notions of scale and time, outpacing our hitherto ability to respond and act – we are witness to the failure of the modern city.

The biennale is an incitement to demonstrate and evidence what collective space can mean, how we can imagine it as an agent of political action of both of social and environmental commons, in order to speculate on the new city. It is a platform

참여하는 주체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의 정치·문화적 목표를 건설하는 주체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이러한 상황의 시급성을 인지하여 진정한 글로벌 청중과 소통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전통적인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 각지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입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하는 상대를 비하하는 태도도 피해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 하에서는 기존의 담론이 확장되고, 예측 불가한 환경에 참여하며, 가장 흥미로운 실험적 시도가 기존의 것들이 아님을 인지하게 된다.

올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도시의 집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의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고 구성될 도시를 연구하여 집합이 실제로 도시의 정치적 활동과 변혁의 주체임을 시사 할 것이다. 우리는 공간적 구조의 틀이자 사회적 실천의 양상으로 떠오르는 새로운 형태의 집합성에 주목한다. 이것은 도시 민영화, 권력의 편중 그리고 사회·환경적 정의구현에 대한 대응이나 그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이번 비엔날레의 목적은 세계적인 차원의 협업과 도시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고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지배구조, 연구 및 예측,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도시 형태와 과정 간의 관계를 정치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세계 여러 파트너 도시들과의 다국적 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비전, 및 사회적 관행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고 토론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협업과 참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나아가 도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변혁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비엔날레에서 수용/거부, 토론, 재고할 수 있도록 지난 비엔날레의 성과들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

임재용, 프란시스코 사닌 (총감독)

to grapple with essential and necessary disciplinary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that must take place to enable us to answer these challenges and to understand how new collective practices can be mapped, tested, innovated and leveraged to truly gain agency and relevancy in the face of most certain adversity.

SBAU 2019 aims to create a space of research and debate opened to and engaged with a truly global audience. The Biennale will explore the condition of the collective in the city, not as the natural state of the city today, but rather as a condition to be reclaimed and reframed, suggesting that the collective subject is in fact the instrument of political ac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city. With the city of Seoul as host, SBAU proposes to engage in this global dialogue with partners from multiple cities around the world to identify innovative forms of collectivity as both spatial constructs, forms of speculation and research, modes of governance and new social practices. It aims to map and explore emerging models of collaboration and city making at a global scale. SBAU will develop a continuity building on previous biennales by establishing research agendas and transformative strategies in the city to be taken over, debated, refused or reconsidered in future editions of SBAU.

Jaeyong Lim, Francisco Sanin
(Co-Directors)

주전시장과 프로젝트 현장

서울 역사 도심 동쪽 관문에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서쪽 관문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비엔날레의 구심점이다.
서울 도시 변화의 역사를 고스란히 겪은 두 곳은
서울의 과거 도시 개발과 현재 도시 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이 두 곳을 연결하는 세운상가와 대림상가가
현장 프로젝트의 장소로 사용된다.

돈의문박물관마을
Donuimun Museum Village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VENUES AND SITES

The two main venues of the Seoul Architecture and Urbanism Biennale 2019 are the Dongdaemun Design Plaza (DDP) and Donuimun Museum Village located in the centre of Seoul. At the East and Western gates of the historic centre these two contrasting sites represent the urban regeneration of Seoul and its urban development.

Along the axis connecting these two venues are the Sewoon Plaza and Daelim Sangga sites that will host the Global Studios and onsite exhibitions.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ongdaemun Design Plaza (DDP)

세운상가와 대림상가
Sewoon Plaza and Daelim Sangga

주제전

큐레이터
베스 휴즈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디자인전시관,
디자인둘레길)

"집합도시"는 집합적 실천과 행위가 어떻게 현재 도시의 개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간 생산의 지배적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번 비엔날레는 건축과 도시, 환경의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고 건축의 정치적 동력을 탐색하기 위해서 공존, 사회적 실천, 거버넌스, 연구 및 추측의 새로운 모델을 반추하고자 한다.

주제전은 현재의 도시 구성을 재해석하라는 권유이자, 우선순위를 재배열해보자는 자극제다.

이 때 부동산 투기와 토지 상품화를 통한 개인 및 자본의 성공으로부터 집합적 권리와 도시가 공유 투자라는 논점으로 초점이 변화된다.

본 프로젝트는 세계적 실천의 다양한 규모와 형식에서 도출된 명제와 연구를 병치하며, 잠재적으로 부조화로운 인식론을 중첩해 배열한다. 비엔날레가 남기려는 유산의 의도는 이처럼 융합된 실천과 규모의 교차 지점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현 분야에 존재하는 선입견을 해체하고 다른 존재 형식에 대한명제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존재론을 권유하는 것이다.

THEM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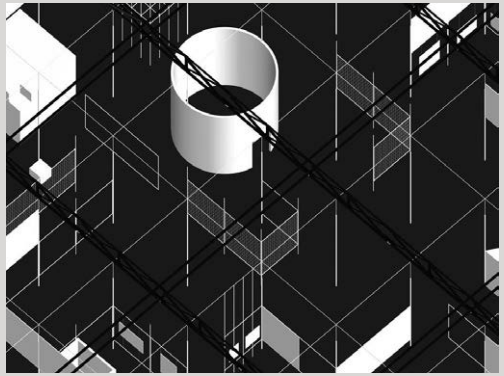
Curator
Beth Hughes

Venue
DDP (Design Exhibition Hall, Design Pathway)

'Collective City' seeks to question how modes of collective practice and action can challenge the current paradigms of city development and offer resistance to the dominant systems of spatial production. The biennale seeks to reflect on new models of co-existence, social practice, governance, research and speculation, to suggest alternative concepts of architecture, the city and the environment and to interrogate architecture's political agency.

The Thematic Exhibition is an invitation to radically reimagine the structure of our cities, a provocation to fundamentally reprioritise, shifting focus from the success of the individual and capital through real-estate speculation and the commodification of land, to foreground collective rights and to claim the city as a shared investment.

The curatorial project juxtapositions research and propositions from diverse scales and forms of global action, imbricating possibly dissonant epistemologies. The potential richness and legacy of the biennale is what can be revealed at the intersection of these conflated scales and practices, to unravel preconceptions within the field and proffer new ontologies as a space of proposition for new forms of existence.



도시전

큐레이터
임동우, 라파엘 루나

장소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도시건축센터

도시전에서는 전세계 약 80여개 도시를 초대하며, 비엔날레의 전체 주제인 집합도시 (Collective City)를 바탕으로, 각각의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와 이슈들을 다루도록 요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간의 연결과 집합의 결과물로서의 도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집합적 결과물로서의 도시 (City as a Collective Consequence)는 우리의 도시가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의 집합체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혹은 계획되지 않은 요소들의 개입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임을 보여준다. 도시전이 열리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이라는 파편화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는 전세계 도시의 상황을 대변해준다.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있더라도 여러가지 요소들로 다시 서로간에 연결되고 있는 도시들의 상황은 돈의문 박물관 마을의 공간과 중첩된다.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시전은 집합적 결과물로서의 도시가 어떻게 서로간에 분리되고 또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전시가 될 예정이다.

CITIES EXHIBITION

Curator
Dongwoo Lim, Rafael Luna

Venue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Seoul Center for Architecture and Urbanism

Under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Collective City,” the 2019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is a platform for discussing the most important issues and themes raised by each of the approximately 80 invited cities. The goal of this year’s discussion is for participants to better understand the collective consequences of connections and meetings between cities. This concept of “cities as a collective consequence” highlights cities not only as an aggregated environment of space, time, and society, but also as living, dynamic systems that are constantly changing as a result of factors that are, in some cases, unintentional or unplanned. The fragmented nature of Donuimun Museum Village, the venue of this year’s biennale, represents the circumstances of cities all around the world, aligning with the fact that, despite the physical boundaries that separate cities, there are many factors that can serve as links between them. It is against this backdrop that the 2019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ims to demonstrate how cities as a collective consequence are separated from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simultaneously at any given time.

글로벌 스튜디오

큐레이터
최상기

장소
세운상가 세운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국제스튜디오(Seoul Biennale Global Studios, SBGS) 세션은 국내외 교육기관의 연구자와 학자의 참여를 통해 주제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비엔날레에 중요한 담론과 비전을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국제스튜디오는 “집합 도시(Collective City)”라는 비엔날레의 공동 주제를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주제는 건축과 도시라는 학제의 학술적 이슈와 전문적 관심을 연결시키며, 광범위한 연구활동은 물론 사회 및 물리적 측면에 기반을 두고 구축된 형태의 디자인을 표방한다.

그런 의미에서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작품은 우리의 구축 환경에 형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동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강력한 물리적 존재감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SBGS는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과 접근은 집합 행위가 어떻게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고 건축을 매개로 취하는 사회에 차별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구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집합 공간은 상호작용에 대한 창조적 전략, 침범, 사회적 경계의 교환을 통해 작용하고 발전한다. 이러한 집합 행동의 패턴은 전통과 현대적 의미에서 시장과 공공 도로, 주택, 기타 구조물 또는 기반시설의 다양한 물리적 모델에서 추출될 수 있다. 도시는 또한 혁신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적극적인 집합적 절차로부터 공익을 취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집합적으로 공공의 선을 위해 도시를 재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규칙과 사회적 합의 사이에 균형을 이뤄준다.

GLOBAL STUDIO

Curator
Sanki Choe

Venue
Sewoon Sangga
sewoon Hall

The second Seoul Biennale Global Studios (SBGS) exhibition and symposium are scheduled for the Fall of 2019 as part of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hosted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 of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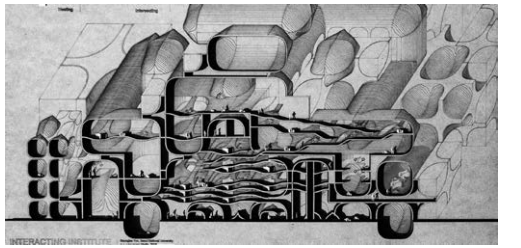
The Global Studio session has played a vital role in expanding the boundaries of the theme and bringing meaningful discourse, content, and vision to the biennale events through engagement active participation of talented students and academics from renow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The Global Studio will participate in the biennale under the common theme of “Collective City”. The theme calls for a wide range of research and design proposals that are grounded in both social and material dimensions, bridging the academic and professional interests of the disciplines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As such, the works produced from the studios are expected to convey a strong physical presence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ocial dynamics that give form to our built environment. The

SBGS will function as a research platform that supports varied interpretations and approaches exploring how collective actions contribute to the urban vitality and bring difference to society..

Collective space operates and evolves through many creative strategies of interactions, intrusions, and exchange of social boundaries. The patterns of such collective actions can be extracted from various physical models of marketplaces, public streets, housing, and other structures or infrastructures both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The city also benefits from innovative governance models and active collective processes that balance out the rules and social agreements that collectively contribute to reshaping the city for the public good.



현장프로젝트

큐레이터
장영철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세운상가,
대림상가 일대

시장은 집합으로서 도시의 형태를 가진다. 도시는 교환의 장소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시장의 밀도가 높아지고, 시장 주위로 다양한 기능들이 부가되면서 현재 도시의 형태로 진화하였다. 도시의 형태는 산업혁명 이후의 철도와 도로의 발달, 분업화된 산업구조, 집약된 자본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그 안에 원초적 모습의 전통시장은 어느 도시나 아직도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초적인 집합 도시인 전통 시장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도시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 우리의 서울은 외적으로 글로벌하지만, 내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미시적으로는 집합적이나, 거시적으로는 파편화되어 있으며, 겉으로는 조화롭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산재한 도시이다. 이런 모순적인 도시문제로부터 도시적 대안을 찾아보고, 의논하며, 배우고, 알아가며, 체험하며, 즐기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집합적 도시의 특성을 가진 전통시장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위를 포함하며, 시민들이 더욱 좋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장소가 되기 위해서 도시건축 디자인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현장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LIVE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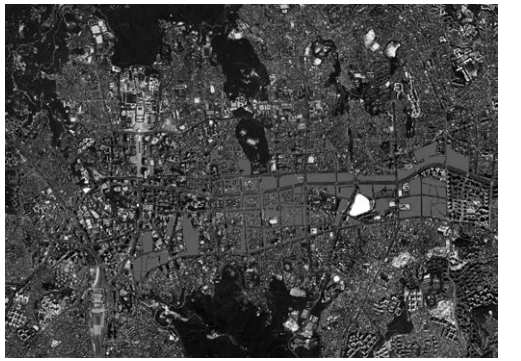
Curator
Yeongcheol Jang

Venue
Seoul Museum of History, Sewoon Sangga, Daelim Sangga

The space of the market is as an aggregation that forms as the city takes shape, emerging from a place of exchange. As the density of the market increased and more functions were added to the surrounding area, it slowly evolved into the current form of the cit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While the structure of all cities were transformed greatly through the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development of railroads and roads, the industrial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 of labor, and the consequences of capitlaism, the market maintains its original form in every city.

From the range of perspectives of the traditional- market within the traditional collective city, this project aims to explore the challenges currently facing our cities. Although we can class Seoul as a global city externally, it is clearly isolated internally; a collective from a microscopic view, but severely fragmented from a macroscopic view; suggesting a harmonious society in appearance, which is in fact, scattered through conflict on the inside. Thus, this project intends to explore the urban alternatives that can accurately address these contradictory city problems and make the process of discussing, learning, understanding, and experiencing an inclusive one for the citizens.

Furthermore, the question which not only considers the ways in which a traditional market that has naturally evolved with the features of a collective city, could include a range of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but also how modern architecture and urbanism design could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urning the traditional market into an integral zone which is economically prosperous and loved and appreciated by the citizens will serve as an essential topic to lead the on-site project.



시민참여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장소
DDP 살림터 나눔관 및 디자인 전시관

— 비엔날레 주제를 통해 도시의 현재 이슈를 이해할 기회 제공
— 컨퍼런스, 워크숍,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연령별 그룹간의 토론과 커뮤니케이션

투어프로그램

장소
서울비엔날레 주 전시장 및 인근 지역

— 시민들과 함께 도시, 건축 장소들을 답사하며 이론적인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능동적인 체험 제공
— 전시 투어, 현장 프로젝트 투어, 집합도시 서울 투어 등

영화영상프로그램

— 서울국제건축영화제와 연계하여 영화를 매개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 영화상영, 토크, 포럼 야외상영과 같은 영화관련 이벤트를 통해 비엔날레의 주제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공동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이벤트

— '서울'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장 마련
— 야외영화상영회, 비엔날레 지도 만들기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 제공

PUBLIC PROGRAM

EDUCATION PROGRAM

Venue
DDP DesignLab Academy Hall and Design Exhibition Hall

— Providing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and understand current issues within the city through the theme of the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 Discussion and communication among various age groups through conferences, workshops, and innovative programs

TOUR PROGRAM

Venue
Seoul Biennale Venues and nearby sites

— Providing a dynamic experience that helps local residents in understanding the thematic of the biennale through visiting the city and the architectural sites.
— Exhibition tour, Live project tour, Collective Seoul City tour

FILM AND VIDEO PROGRAM

— Film series related to the 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 that engage the wider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of Seoul
— Provide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Seoul Biennale's theme through film-related events such as film screenings, film talk, forum, and outdoor film screening.
— Co-Host : Korean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EVENT

— A festival of events in the city for people can enjoy various events in the city of 'Seoul'
— An activated program that expands the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biennale such as outdoor film screenings and biennale map making.

개·폐막 주간 행사

개막주간 행사

기자팸투어

일시
2019.9.5 – 9.6

대상
초청 기자

장소
서울비엔날레
주 전시장 및 현장

사전 오프닝

일시
2019.9.5 – 9.6

대상
초청자, 참여작가 및
관계자

개막포럼
(세계총괄건축가 포럼)

일시
2019.9.6

대상
일반시민

영화제 개막식

일시
2019.9.7

대상
초청자, 일반시민

개막식

일시
2019.9.7

대상
초청자, 참여작가 및
관계자, 일반시민

글로벌스튜디오 심포지움

일시
2019.9.8

대상
참여교수 및 학생,
일반시민

폐막주간 행사

폐막식

일시
2019. 11. 10.

대상
초청자, 참여작가 및
관계자, 일반시민

OFFICIAL EVENTS

OPENING WEEK EVENTS

Press Tour

Date
September 5 – 6,
2019

Participants
Inviting Press

Venue
Seoul Biennale
Venues

Pre-Opening

Date
September 5 – 6,
2019

Participants
VIP, Participating
artists

Opening Forum
(City Architect
Forum)

Date
September 6, 2019

Participants
Open to Public
(Advance reservation)

Film & Video
Program
Opening Ceremony

Date
September 7, 2019

Participants
Invited person,
Open to Public

Opening
Ceremony

Date
September 7, 2019

Participants
VIP, Participating
artists, Open to
Public

Global Studio
Symposium

Date
September 8, 2019

Participants
Participating
Professors and
Students, Open to
Public

CLOSING WEEK EVENTS

Closing
Ceremony

Date
November 10, 2019

Participants
VIP, Participating
artists, Open to
Public

2019.9.7 – 11.10

전시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도시건축센터, 세운상가, 대림상가, 서울역사박물관 등

주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사무국

공식 홈페이지
www.seoulbiennale.org

문의
seoulbiennale@gmail.com

페이스북 @seoulbiennale
인스타그램 @seoulbiennale
유투브 seoulbiennale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

SEPTEMBER 7 – NOVEMBER 10, 2019

Venue
Dongaemun Design Plaza(DDP), Donuimun Museum Village, Seoul Hall of Urbanism & Architecture, Seoul Center for Architecture and Urbanism, Sewoon Sangga, Daelim Sangga, Seoul Museum of History etc.

Organization
Urban Space Improvement Burea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Biennale Architecture and Urbanism Division

Official Page
www.seoulbiennale.org

Inquiry
seoulbiennale@gmail.com

Facebook : @seoulbiennale
Instagram : @seoulbiennale
Youtube : seoulbiennale

I·SEOUL·U

Seoul Design 서울디자인재단

AIA International Region